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태도가 유아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안라리¹, 박화윤^{2*}, 신인영³

¹광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²원광대학교 유아교육학과, ³상아유치원

The Effect of Father's Self-Esteem and Child Rearing Attitude on Children's Self-Esteem and Emotional Intelligence

Ra-Ri An¹, Wha-Yun Park^{2*} and In-Young Shin³

¹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wangyang Health College

²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Wonkwang

³Sang-A Kindergarten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태도가 유아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J시에 위치한 2곳의 유치원에서 만 3, 4, 5세 유아 각 40명씩 총 120명과 그 아버지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아버지가 자아존중감이 높고 아버지의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를 보일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거부적 양육태도를 보일 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버지의 자율적·애정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아의 정서지능은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아버지가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를 보일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거부적 양육태도를 보일 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자율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effect of father's self-esteem and child rearing attitude on children's self-esteem and emotional intelligence. The subject were 120 children and their father who were early childhood education service in J city. Data analysed with Pearson correlation, regress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the children's self-esteem and the father's self-esteem and affective-autonomous child rearing attitude. Second, the father's affective-autonomous child rearing attitude has effect on the children's self-esteem.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the children's self-esteem and the father's self-esteem and affective-autonomous child rearing attitude. Fourth, the father's affective-autonomous child rearing attitude has effect on the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Key Words : Child Rearing Attitude, Emotional Intelligence, Self-Esteem

1. 서론

인간은 급속한 현대 사회의 변화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자신이 속한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습득하고,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배우며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해간다. 유아기는 인간 생활

의 기본이 되는 모든 발달적 측면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자신이 지각한 자신의 여러 가지 속성과 가치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self-esteem)은[1]건전한 인성 발달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적응과 함께 유아기 이후의 삶의 질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다[2].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

*Corresponding Author : Wha-Youn Park(Wonkwang Univ.)

Tel: +82-63-850-6429 email: pwhayun@Wonkwang.ac.kr

Received May 2, 2013

Revised (1st May 20, 2013, 2nd June 5, 2013)

Accepted June 7, 2013

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 자신에 대한 만족이나 호의 정도, 혹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느껴지는 자신에 대한 가치감 등으로 정의되는 개념이다[3]. 자아존중감은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4] 성공적인 역할 수행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5] 유아기에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정서적 경험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6].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생득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 가족구성원, 또래, 교사등을 통해 차츰 자신에 대한 의식으로 확대되어간다.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을 보다 긍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현대 유아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부모가 유아에게 보여주는 가치 그대로 유아가 자기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며, 특히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학교에 들어가서 학업성취도에 대한 실패와 성공을 경험함으로써 더욱 영향받게 된다. 그러므로 교사나 부모는 유아에게 자기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만족하여 성취감을 갖고 계속적으로 축적된 경험을 쌓도록 도와주어야 한다[7].

자아존중감과 함께 유아의 정서는 인간이 생존하고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고, 인간 행동을 안내하거나 동기유발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지원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8]. 유아의 정서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성장 발달하면서 형성되어지는 중요한 정서적 발달특성으로써 20세기 초 까지만 해도 감정과 동일한 것으로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으나 Gardner[9]와 Sternberg[10] 등이 지능의 개념을 확장하고 다양화하면서 정서지능의 기초 개념들을 소개하였다. 이후 Mayer와 Salovey[11]에 의해 정서 지능이라는 개념이 정립되면서, 정서 지능은 정서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며 조절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실제 자신의 삶에서 정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배려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능력까지 확장되어왔다. 정서 지능이 높은 유아들은 대인관계 형성능력이 뛰어나고[12] 학령기가 되었을 때도 지속적으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유아기 자아존중감과 정서 지능은 일차 양육자인 부모에게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아 형성되기 시작하며, 특히 부모 스스로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자녀를 행복한 아이로 자라게 하며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부모는 유아가 출생하면서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해 자신의 가치 및 정서적 성향을 무의식적으로 형성하게 된다. 부모의 심리적 자세는 유아의 자아개념 및 정서 지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특히 부모의 애정적, 자율적인 양육태도 또는 긍정적 양육태

도를 보일수록 유아의 정서 지능이 높게 나타났다[15].

이러한 부모의 심리적 태도 및 양육태도는 주로 어머니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도 및 참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아버지의 역할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차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버지는 실제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적지만 어머니와 비슷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며[16]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 결과 밝혀지고 있다[17, 18, 19].

유아기에 형성되는 자아존중감과 정서 지능은 일생을 거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써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유아가 속해 있는 일차적 환경인 가정에서 주 상호작용의 대상자인 부모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인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관계를 맺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서지능에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이지만 밝혀진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 양육태도에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고, 현대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부각되고 있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태도에 관련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 지능에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태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유아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태도가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태도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J시에 위치한 2개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만 5세 40명, 만 4세 40명, 만 3세 40명과 유아의 아버지

1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성별 구성은 연령별로 남녀 각각 20명씩이었다. 본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유아와 아버지의 일반적 배경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Background of Subject

background variable	classification	case (N)	frequency (%)
children's sex	boy	60	50.0
	girl	60	50.0
children's age	3	40	33.3
	4	40	33.3
	5	40	33.3
father's age	under 35	9	11.7
	36-40	26	47.5
	over 41	98	40.8
father's scholarship	under high school	6	4.2
	2 years college	12	10.0
	4 years university	63	52.5
	graduate school	40	33.3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부모용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검사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유아의 정서지능을 알아보기 위해 교사용 유아정서지능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도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을 알아보기 위해 Rosenberg (1965)가 개발한 것을 전병제(1974)가 변안한 자아 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가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도구는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감정 상태나 인지적인 추론으로 자아개념을 파악하면서 총체적인 자기 평가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내적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s α 는 .93이었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Shaefer의 P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MBRI)를 이원영 (1983)이 변안한 것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거부적, 자율적, 통제적 태도로 구분하고 각각 12문항씩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Likert식 5점 척도로서, 각 하위 요인 별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애정적 태도점수, 거부적 태도 점수, 자율적 태도점수, 통제적 태도 점수를 구하여, 평정점수가 높아질수록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그 하위요인에 해당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내적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s α 는 애정적 양육태도 .83, 거부적 양육태도 .79, 자율적 양육태도 .90,

통제적 양육태도 .83이며 아버지 양육태도 전체는 Cronbach's α .87이었다.

셋째,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고헌경 (2010)의 유아의 자아존중감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Hater와 Pike(1984)의 PSPC(The Pictorial scale of Perceives Competence)를 보완하여 총 50문항으로 구성된 지성애, 김영옥, 박희숙(2003)의 '유아의 자아존중감 척도'에서 중복되는 10문항을 제외하고 총 40문항으로 구성된 4점척도이다. 본 도구는 인지적 자아, 사회적 자아, 신체적 자아, 가족 수용자아, 정서적 자아 5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측정되고 각 하위영역별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내용은 검사자가 그림자료를 보여주면서 유아의 대답을 채점표에 기록하여 평정하는 4점척도 검사도구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내적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s α 는 인지적 자아 .89, 사회적 자아 .90, 신체적 자아 .79, 가족수용 자아 .80, 정서적 자아 .91이며 유아의 자아존중감 전체는 Cronbach's α .89였다.

넷째, 유아의 정서지능은 김경희(1999)가 개발한 교사용 유아 정서지능 평정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기정서의 이용 12문항, 타인정서의 인식 10문항, 자기 정서의 인식 9문항, 감정의 조절 9문항, 교사와의 관계5문항, 또래와의 관계 5문항 등 총 50문항으로 구성된 5점 평정척도로서 담임교사가 유아를 관찰한 후 평정하였다. 각 문항의 내용은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서로 반대 의미를 가진 한 쌍의 진술문으로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내적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s α 는 자기정서의 이용 .91, 타인정서의 인식 .89, 자기정서의 인식 .81 감정의 조절 .79, 교사와의 관계 .91, 또래와의 관계 .77이며 유아의 정서지능 전체는 Cronbach's α .91이었다.

2.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연구에 사용할 도구의 적절성 및 문제점, 소요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2012년 11월 14일-16일까지 전라북도 J시에 위치한 사립유치원 1곳에 재원하고 있는 만 3-5세 유아 각각 5명씩 총 15명과 그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여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다. 유아의 자아존중감 측정은 유아에게 문항만 읽어주면서 그림카드를 보여줄 경우, 유아의 문항 이해정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유아에게 그림 카드를 보여주며 면담형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유아의 정서 지능 측정 도구는 문항이 서로 반대 의미를 가진 한 쌍의 진술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담임교사가 좀 더 정확한 측정을 하도록 돕기 위

[Table 2] Correlations among Father's Self-Esteem, Child-Rearing Attitude and Children's Self-Esteem

father	children self esteem	self esteem					
		cognitive	social	physical	family acceptance	emotional	total
self esteem		.32**	.01	.08	.21*	.29**	.28**
child rearing attitude	affective	.22*	.11	.02	.19*	.36**	.29**
	rejective	-.28**	-.03	-.05	-.19*	-.27**	-.26**
	autonomous	.33**	.17	.16	.22*	.30**	.36**
	over protective	-.21*	.07	-.19*	-.12	-.16	-.17

* $p < .05$ ** $p < .01$

하여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문구를 삽입하였다(예:“아동에 대한 인상에 근거하여 보다 가까운 곳의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본 연구는 전라북도 J시에 위치한 2개 유치원에서 2012년 12월 3일-14일 까지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가 유아교육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동의를 얻어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학급과 분리된 조용한 공간에서 직접 측정하고,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측정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배부하였다. 배부한 설문지는 5-6일 후에 기관을 재방문하여 회수하였다. 담임교사의 유아의 정서지능 측정은 최근 4주간 유아의 자유선택활동 시간과 일상생활 관찰을 통해 이루어졌다. 유아교육기관으로 회수된 아버지용 자아존중감과 양육태도 설문지 중 유아와 아버지 그리고 교사의 설문지가 모두 회수된 유아에 한해서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4 연구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의 분석은 SPSS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자아존중감과 유아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자아존중감이 유아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Table 2) 아버지의 자아존중감($r = .28, p < .01$)과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r = .29, p < .01$) 및 자율적 양육태도($r = .36, p < .01$)와 유아의 자아존중감 전체는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태도($r = -.26, p < .01$)와 유아의 자아존중

감 전체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아버지가 애정적 자율적 양육태도를 보일 때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높게 나타나고,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일 때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낮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가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가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Table 3) 아버지의 자율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인지적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12%였다($F = 4.55, p < .01$).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정서적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3%의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4.74, p < .01$). 유아의 자아존중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버지의 자율적 양육태도로서 14%의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5.03, p < .001$). 아버지의 자아개념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아버지의 자율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인지적 자아존중감 및 자아존중감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정서적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 The Effect of Father's Self-Esteem, Child-Rearing Attitude on Children's Self-Esteem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β	t
cognitive self esteem	constant	18.37		4.34***
	autonomous	.13	.28	2.04***
		$R^2 = .16$	$ads.R^2 = .12$	$F = 4.55^{**}$
emotional self esteem	constant	15.41		2.80**
	affective	.15	.27	2.14*
		$R^2 = .17$	$ads.R^2 = .13$	$F = 4.74^{**}$
self esteem	constant	100.09		6.64***
	autonomous	.46	.27	2.05*
		$R^2 = .17$	$ads.R^2 = .14$	$F = 5.03^{***}$

* $p < .05$ ** $p < .01$ *** $p < .001$

[Table 4] Correlations among Father's Self-Esteem, Child-Rearing Attitude and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children father		emotional intelligence						total
		use of self emotion	awareness of other's emotion	awareness of self emotion	controlling of emotion	relationship with teacher	relationship of peer	
child rearIng attitude	self eesteem	.32**	.49**	.38**	.31**	.43**	.26**	.46**
	affective	.25**	.40**	.24**	.39**	.34**	.22*	.39**
	rejective	-.24**	-.40**	-.28**	-.34**	-.34**	-.21**	-.38**
	autonomous	.36**	.41**	.47**	.37**	.44**	.29**	.51**
	overprotective	-.09	-.10	-.21*	-.09	-.22*	-.14	-.17

*p<.05 **p<.01

3.3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의 관계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Table 4) 아버지의 자아존중감($r=.46, p<.01$)과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r=.39, p<.01$) 및 자율적 양육태도($r=.51, p<.01$)와 유아의 자아존중감 전체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태도($r=-.38, p<.01$)와 유아의 자아존중감 전체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아버지가 애정적 자율적 양육태도를 보일 때 유아의 정서지능은 높게 나타나고,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일 때 유아의 정서지능은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4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Table 5) 아버지의 자율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자기정서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14%였다($F=4.97, p<.001$).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은 유아의 타인정서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9%의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1.07, p<.001$). 유아의 자기정서의 인식은 아버지의 자율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24%($F=8.93, p<.001$)였고, 교사와의 관계 역시 아버지의 자율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이 22%의 설명력을 갖고 있었다($F=8.12, p<.001$).

유아의 정서지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버지의 자율적 양육태도와 아버지의 자아개념으로 30%의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1.64, p<.001$). 따라서, 아버지의 자율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자기정서 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은 유아의 타인정서인식능력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

의 자율적 양육태도와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은 유아의 자기정서의 인식, 교사와의 관계 및 전체 정서 지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5] The Effect of Father's Self-Esteem, Child-Rearing Attitude on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β	t
use of emotion	constant	8.55		.63
	autonomous	.54	.36	2.72**
		$R^2=.17$	$ads.R^2=.14$	$F=4.97**$
awareness of other's emotion	constant	10.94		1.55
	father's self esteem	.17	.34	3.53**
		$R^2=.32$	$ads.R^2=.29$	$F=11.07***$
awareness of self emotion	constant	.143		.14
	autonomous	.66	.53	4.25***
	father's self esteem	.15	.22	2.16*
	$R^2=.27$	$ads.R^2=.24$	$F=8.93***$	
relationship with teacher	constant	4.26		.90
	autonomous	.17	.31	2.42**
	father's self esteem	.09	.28	2.72*
	$R^2=.25$	$ads.R^2=.22$	$F=8.12***$	
emotional intelligence total	constant	40.95		1.09
	autonomous	1.89	.41	3.41**
	father's self esteem	.68	.26	2.71**
	$R^2=.33$	$ads.R^2=.30$	$F=11.64***$	

*p<.05 **p<.01 ***p<.001

4.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에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태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유아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 결과

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를 가질 때 유아의 자아존중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아버지가 거부적 양육태도를 보일 때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만 4-5세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20]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을 위해 양육에 많은 참여를 함으로써 자녀의 사회 정서 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각 영역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로를 통해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거의 밝혀진 바가 없으므로 이를 후속연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은 유아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과 관계가 있으므로 아버지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과 유지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둘째, 아버지의 자율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자아존중감 하위요인 중 인지적 자아존중감은 아버지의 자율적 양육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적 자아존중감은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만 4-6세 유아를 대상으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직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17][18]와 유사한 것이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연구되었고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많지 않으나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아버지의 자율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으로 형성하도록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정서지능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정서지능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를 가질 때 유아의 정서 지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아버지가 거부적 양육태도를 보일 때 유아의 정서 지능은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아버지의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 지능은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 [19][21]와 일치하는 것

으로써,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면서 자율적일 때 유아의 정서 지능 발달을 긍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모교육에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재인식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반면, 자녀를 애정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자녀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며 자녀의 감정표현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양육을 큰 부담으로 여기는 거부적 양육태도를 통해 자란 유아는 부모에 대하여 적대감정을 가지며 분노가 발생하고 내면화된 갈등과 고통을 지니게 되어 정서지능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많은 규율을 설정하고 엄격하게 지키기를 요구하는 통제적 양육태도보다 더 부정적으로 유아의 정서 지능과 관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자율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정서 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중 자기정서의 이용은 아버지의 자율적 양육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타인정서의 인식은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 정서의 인식과 교사와의 관계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자율적 양육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만 3-6세 유아를 대상으로 아버지의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18][19][21]와 부분적으로 맥락을 같이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자율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정서 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자율적 양육태도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애정을 주면서도 유아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스스로 일을 처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양육태도로 인하여 부모는 유아에게 문제해결력을 키워주고,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비지시적인 양육태도를 통해 활동적이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면서 유아의 정서지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자녀양육에 있어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반면 아버지와 관련된 연구가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태도가 유아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 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부모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은 유아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므로 아버지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과 유지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유아교육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아버지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 및 유지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정서 지능 발달을 위해 아버지는 애정적 자율적 양육태도를 갖고 유아의 양육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유아와 보내는 양질의 시간을 아버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기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더 나아가 애정적 자율적 아버지 역할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정보를 제공하는 부모교육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에 아버지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본 연구는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연령별, 성별로 아버지가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못했다. 유아는 연령별로 발달의 차이가 크고 성별로 아버지와의 관계로 인해 받는 영향력이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향력이 유아의 성별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지 밝혀진다면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B. G. Choi., & G. Y. Jeon. Research: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elf-esteem inventor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1(2), 41-54, 1993.
- [2] Humphreys, T. *Self-esteem, the key to your child's future*. London; Gill & Macmillan, 2002.
- [3] Brinthaupt, T. M., & Erwin, L. J. Reporting about the self: Issue and implications. In T. M. Blinthaupt & R. P. LIPKA (Eds.), *The self difinitional and methodological issues* (pp. 137-171).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2.
- [4] S. H. Ryu., & Y. K. Ahn. 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ren's interpersonal anxiety and self-esteem. *Journal of Open Education for Early Childhood*, 10(3), 235-249, 2005.
- [5] Y. S. Kim. A study on the relevant variables of children's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02.
- [6] S. K. Lee.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parent-involved self-esteem enhancing program for young children and it's effec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gshin University, 2012.
- [7] W. H. Park., Y. A. Kim., J. S. Ma., R. R. An., S. W. Lee., H. J. Lee., J. H. Jo., & E. J. Hur. *Pedagogy of subject*. Gyeonggi: Gongdongche, 2010. DOI: <http://dx.doi.org/10.6115/khea.2011.49.2.075>
- [8] Marion, C. H. *The emotional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Building an emotion-centered curriculum*. Teacher College Press, Columbia University, 1994.
- [9] Gardner, H. *Frame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 New York: Basic books, 1983.
- [10] Sternberg, R. *Successful intelligence*. New York: A Plume Books, 1986.
- [11] Mayer, J. D., & Salovey, P. Emotional Intelligence,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0, 1990.
- [12] W. Y. Park., J. S. Ma., & M. Y. Kim. The effect of emotional control and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 ability on children's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mative.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3(11), 5083-5090, 2012.
- [13] K. E. Lee., & J. L. Lee. Reciprocal influences between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7(1), 65-73, 2009.
- [14] Jaffe, M. L. *Understanding parenting*. Dubuque. IA: WCB, 2001.
- [15] H. J. Ahn.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emotional intellig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9.
- [16] Lamb, M. E. Father and child development: An intergrative overview. In M. E. Lamb(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Wiley, 1981.
- [17] J. S. Yang.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child-rearing attitude and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9(2), 75-84, 2011.
- [18] M. H. Choi. The relationship parental rearing attitude and rearing attitude consistency between parents to children's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2003.
- [19] E. H.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ther's child rearing attitude and the child's creative personal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an's University, 2012.
- [20] H., Y. Ko., & S. Y. Lee. An analysis of self-esteem in young children and their parents.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5(1), 27-50, 2010.

- [21] Y. A. Kim. A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rearing attitudes and their infant's emotional quoti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eonggi University, 2002.
-

박 화 윤(Wha-Youn Park)

[정회원]



- 197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문학석사)
- 199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문학박사)
- 1977년 3월 ~ 1982년 2월 : 기전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 1982년 3월 ~ 1985년 2월 : 광주보건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 1985년 9월 ~ 현재 : 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유아놀이지도, 부모교육,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안 라 리(Ra-ri An)

[정회원]



- 199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문학석사)
- 2005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문학박사)
- 1996년 3월 ~ 현재 : 광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육과정, 유아사회교육

신 인 영(In-Young Shin)

[정회원]



- 2013년 8월 졸업예정 :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석사)
- 2011년 3월 ~ 현재 : 전주상아유치원부원장

<관심분야>

아동발달, 부모교육